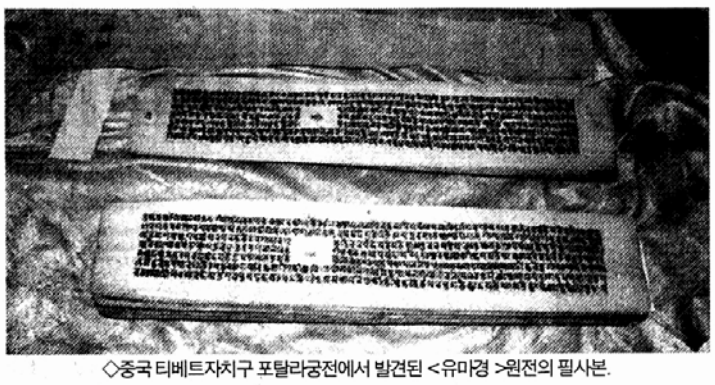
8세기 유마경 原典 발견

日 大正大종합불교연 티베트 포탈라 궁전서

산스크리트 필사본 … 가로 30 세로 6cm
야자나무 잎에 기록, 보존상태도 양호

대승불교 연구 획기적 전기



◇중국 티베트자치구 포탈라궁전에서 발견된 <유마경 >원전의 필사본.

◇다이죠우대 연구팀의 포탈라궁전에서의 조사 장면.

8세기경의 〈유마경〉 원전이 발견돼 〈유마경〉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일본 다이죠우(大正)대학(松濤誠達 학장) 종합불교연구소(吉田宏晳 소장)는 지난 12월 14일, 지금까지 일실된 것으로 알려진 대승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원전을 중국 티베트자치구 포탈라궁전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마경〉은 재가의 유마거사가 출가 수행자들과의 토론에서 논파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경으로, 대승사상의 핵심을 설하고 있어 한중일 삼국에서도 옛부터 친근한 경전이다. 〈승만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재가주의(在家主義)를 천명한 이 경은 정묘한 대승적 경지를 촌철살인하듯 보여줘 선가에서도 즐겨읽고 있다. 〈삼경의소(三經義疏)〉를 저술한 일본의 성덕(聖德)태자도 〈법화경〉 〈승만경〉과 함께 〈유마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암파(岩波)불교사전〉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산스크리트 원전은 일실되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세계 불교연구자들이 〈유마경〉의 원전을 찾고 있었다.

발견된 원전은 8세기경의 필사본(筆寫本)이다. 사본은 가로 30cm, 세로 6cm의 야자나무 잎에 기록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종합불교연구소는 중국측의 관계기관과 교섭을 거듭해 포탈라궁에 소장된 문헌조사에 합의했었다. 1999년 7월말부터 8월초순에 걸쳐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드디어 발견이 이뤄진 것이다.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마쯔나미 다이죠우대학장은 "내용도 산스크리트 문법과 정확히 일치해 1급 문헌"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유마경〉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첫 발견자인 다까하시(高橋尙夫) 종합불교연구소 부소장은 "관심이 있었던 〈지광명장엄경(智光明莊嚴經)〉을 때마침 열람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마경 12장'이란 제목이 적혀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것이 원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경악했다"는 흥분된 감탄사까지 했다고 한다.

〈유마경〉 원전 발견으로부터 발표까지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중국 당국과 관계기관과의 조정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11월에 그 원전의 영인판이 다이죠우대학에 전해져 이번에 발표가 이뤄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청바지를 입은 부처님:** 불교가 북미 대륙에서 젊은 불자들의 대안 종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작가 수미 런던(Sumi London)이 미국의 대중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를 추적한 〈청바지를 입은 부처님(Blue Jean Buddha-Voice of Young Buddhists)〉에는, 미국의 저명한 명상가 잭 콘필드(Jack Komfield)의 '미국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 수미 런던은 "미국에서의 불교는 더 이상 이국적인 것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다"며 "다른 철학에 앞서 대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라며, 불교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 위즈덤 출판사 펴냄.

해외 불서

• **불교 법수사전:** 불교 서적을 읽다보면 '3계' '4성제' '6바라밀' '8정도' 등 숫자가 붙는 말이 자주 보인다. 이와 같이 숫자로 불교의 가르침을 집약한 것을 '법수(法數)'라고 부른다. 방대한 교리를 간편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수'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수를 알면 불교를 체계적,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토쿄대학 국학원대학문학부 미야하라(宮元啓一) 교수 지음, 일본 에이바무(EVAM)사 펴냄.

• **종교와 인간의 미래:** 종교 불신, 종교 기피의 풍조속에서 종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21세기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21세기 종교인의 사명 등 현대 문명사회 속의 종교의 미래를 조망한 책. (재)일본현대종교연구회가 지난 해 4월 23일 개최한 '21세기 일본의 종교를 생각한다' 심포지움 기록집이다. 이시이 겐지(石井硏士) 외 6인 공저, 일본 백마사(白馬社) 펴냄.

印 기념관 건립 등 불사 잇달아

카필라바스투 55m 불상 세우기로
불교 웹사이트 마무리 단장 한창

연말연초 인도에서는 많은 불사들이 새로 시작되거나 마무리 지어지면서 기념행사가 잇달았다. 특히 이 불사들은 대부분 인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거나, 크게 재정보조를 한 것이어서 '소수종교를 억압하는 힌두교 원리주의 정부'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나그뿌르의 딕샤부미에서는 암베드까르 기념관 준공 기념식이 열렸다. 현대 인도 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까르 박사를 추모하기 위한 이 기념관은 지난해 10월 완공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선을 보였던 대법당과 다목적 강당을 갖춘 건물로, 이제 2층 강당도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정식 준공을 본 것이다. 국회의원이며 딕샤부미를 운영하는 암베드까르 기념위원회 가바이(R. S. Gavai)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준공 기념식에는 인도 나라야난(K. R. Narayanan)대통령을 비롯, 마하라슈트라주의 알렉산더(P. C. Alexander) 주지사, 데쉬묵(Vilasrao Deshmukh) 주수상 등 정계의 거물들이 참석했다.

나라야난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암베드까르 박사가 착취당하던 하층민들의 정신적 고양을 위하여 불교로 개종한 것은 혁명적 결단이었으며, 동시에 인도 고유의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그가 종교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인도 중부 하이데라바드 근교의 작은 도시 비사카빠뜨남에서는 '선 공원(Zen Garden)'이라는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라마니(Rajana Ramani) 시장을 비롯, 시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비사카빠뜨남 시 당국이 약 1300 여평의 부지에 마련한 선 공원 중앙의 호수 한가운데에 불상이 모셔져 있다.

카필라바스투에서는 지난 연말 높이 55미터에 달하는 불상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 곳이 부처님의 고향임을 기리기 위해서 카필라바스투가 속해있는 군 이름을 '싯다르타 나가르'로 바꾸기도 했던 우따르 쁘라데쉬 주 정부는 다시 이 곳에 불상을 건립함으로써 카필라바스투를 성역화 한다는 계획이다.

기공식장에서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주 수상은 150 미터 높이의 미륵불상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주변에 공원, 병원,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 종합 사회복지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불교 웹사이트 역시 오픈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이 '사이버 불사'의 주인공은 작년 12월 초 암베드까르 박사의 저술과 음성, 사진 등을 모은 자료 사이트(www.drambedkar.com)를 열어 인도 웹사이트 중 '개인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보 사이트'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밀린드 깜블레(Milind Kamble)씨다.

인도 뿌나= 이지은 통신원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9. 푸드갈라란?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죽어가는 것일까. 그리고 인간이 여러 생을 살아가면서 윤회를 거듭한다면 그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윤회의 주체는 무엇일까. 실로 이 문제는 초기불교에서 선(禪)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궁극적인 관심사이며 불교수행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불교교단은 기원전 544년 북인도의 쿠시나가라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붓다가 입적한 뒤부터 현대불교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사윤회의 비밀을 해명하기 위한 종교적 모색을 쉬지 않고 진행해왔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불교가 사용하는 키워드는 윤회, 업, 중유(中有), 푸드갈라(pudgala) 등이 있다.

푸드갈라설은 초기불교경전과 아비달마의 논서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 푸드갈라는 어원적으로 신체, 영혼, 개인을 의미하는 범어의 어근 pums에서 파생된 말로서 자아, 사람, 생명 등 살아있는 존재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의 역경가들은 이 말을 음사해서 보특가라(補特伽羅)라고 하기도 하고 인(人), 사부(士夫), 명자(命者), 삭취취(數取趣)라고 번역하고 있다. 특히 푸드갈라의 한역어에서 삭취취라는 용어는 '생사윤회를 자주 반복한다'는 뜻으로 푸드갈라의 교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여시어경〉에서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푸드갈라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거듭 태어난다" 또는 "어떤 푸드갈라들은 이 생으로부터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푸드갈라들은 후생에서 열반을 성취한다"고도 하며 "한 푸드갈라가 여러 생을 살면서 남긴 뼈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그것은 하나의 산을 이룰 것이다"라고 한다. 즉 윤회하는 생명의 주체로서 푸드갈라가 가진 교리적 성격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푸드갈라란 무엇인가. 푸드갈라는 기본적으로 윤회하는 인간 존재에 관한 매우 깊은 사색에서 출발한 교리이지만 불교의 중요한 명제인 무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주체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윤회하는가"는 난해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교단은 푸드갈라에 대한 탐구를 거듭하여 각 부파마다 여러 방향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오직 경전에 의한 불법의 해명만을 존중하는 경량부(經量部)에서는 푸드갈라를 전세에서 후세로 연속되는 일미온(一味蘊)의 존재를 인정한다. 일미온이란 미세한 의식이며 이 일미온이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또한 독자부(犢子部)에서는 푸드갈라를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이라고 한다. 비즉비리온이란 '자아에 관련된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서 푸드갈라는 언어로써 표현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가설장(不可說藏)이라고도 한다. 화지부(化地部)의 논사들은 푸드갈라를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궁극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궁생사온(窮生死蘊)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비달마의 여러 학파들이 윤회의 궁극적인 주체를 탐구하여 제기한 푸드갈라설은 불교유심론의 정점에 도달한 유식(唯識)사상의 완성자 아상가(310-390, 無着)가 쓴 〈섭대승론〉에서 근본식(根本識)으로 해명된다. 실로 윤회하는 인간존재의 주체를 탐구하는 기나긴 도정에서 성립된 푸드갈라설은 유식사상의 아뢰야식(阿賴耶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유식불교에서 설하는 아뢰야식은 인간의 자아와 우주를 연결하는 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며 원리이다. 인간의 미망과 해탈도 모두 아뢰야식에 있다. 때문에 이미 입적하신 성철 선사께서도 자주 "선문의 견성이 근본이니 견성은 진여자성을 철견(徹見)함이다. 자성은 그를 엄폐한 근본무명, 즉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념이 영절하지 않으면 철견하지 못한다"고 설하셨다. 성철 선사 역시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아뢰야식의 미세망념과 고행으로 대결하면서 그토록 높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윤회문제 깊이 사색
종파마다 해석 달라

끝으로 나는 푸드갈라의 문제처럼 불교교리사의 경우, 교리의 발전사라는 틀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소승, 아비달마의 교리, 심지어는 위경(僞經)의 교리라고 할지라도 단계가 낮은 가르침이라고 비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오랜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리의 흐름들은 결국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며 해답이기 때문이다.

▩ 경학회 회주

기도 ·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